# Team Meeting #4

20 SEPTEMBER 2019 / 5:00 PM ~ 6:00 PM / 비트캠프 203호실

## **Attendees**

김영준, 김유빈, 신우혁, 심수현, 임성빈, 조희정

# **Agenda**

## 다른 경로로 과외매칭이 될 때 수수료를 못받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

- 1. 배달의 민족의 경우, 해당 플랫폼에서 주문을 10번 하면 1번은 수수료 무료와 같은 혜택이 있다고 한다.
- 2. 사람인 같은 채용 플랫폼의 경우, 고용주의 정보를 올릴 때와 고용주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볼 때 마다 수수료를 낸다.
- 3. 수수료 개념이 아닌 서비스 사용료 개념으로 진행
- 4. 단순한 중개 시스템이 아닌 서포트 시스템으로 진행 (관리 시스템)

## 수익 창출 방안

- 1. 광고 수익료는 적으므로 수익 창출방식에서 제외
- 2. 킬러 서비스들에 대한 사용료 (정산 시에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)
- 3. 자택에서 과외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스터디 카페의 공석과 매칭 시켜서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공하고 스터디 카페 쪽에도 수수료를 받는다.
- 4. 월 초에 사용자로 부터 받은 돈으로 정산하기 전 월 말까지의 1달 동안 금융수익을 창출

#### 킬러 서비스

- 1. 관리 시스템
  - 학생과 선생님이 둘 다 과외를 수락하여 매칭이 되면 그 때부터 사용가능
  - 과외 요일 체크 캘린더 기능
  - 과외 시마다 주기적으로 학생 / 선생님의 평가를 기록한다.
  - 한 과목에 대한 진도, 학생의 레벨, 출석, 시험 성적 등을 체크하여 로그로 남겨서 도중에 중단하더라도 다음 선생님이 학생의 현재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.
  - 학부모 역시 위의 로그가 열람 가능
  - 당일 진행 했던 과외 내용을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

- 2. 선생님에 대한 마케팅
  - 자체적으로 검증할 시스템 필수 도입
  - 검색 상위 및 추천에 링크
  - 마케팅을 받은 사람은 과외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마케팅 비용을 더 받는다.

## 정책 및 조항

- 1. 과외비는 서비스 업체가 과외를 받는 사람에게 받아서 맡고 있다가 정산해 주는 방식
  - 과외비를 안 주거나 밀리는 학부모를 방지
  - 도중에 중단하면 그 일수 만큼 환불을 하기 위함
- 2. 과외 중단 몇 주 전에는 공지를 해야한다.
- 3. 계약 조항에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명시
- 4. 선생님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함
  - 본인 PR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(각종 서류들)도 체크
- 5. 교육청에 신고한 신고서 등의 서류가 있을 때에만 과외 선생으로 등록 가능
  - 신고 시에 졸업장 원본 / 선생님의 범죄이력 등을 조회

## **Notes**

• 과외비는 보통 주 30~40 만원 정도가 보편적

## **Next Meeting Agenda**

- 1. 관리 시스템에 추가 및 보완해야 할 사항들 생각해오기
- 2. 킬러서비스에 대해 생각해오기
- 3.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생각해오기